

이코노 & 비즈 피플

'기능 한국인' 선정 김보곤 디케이산업 대표

“작은부품 하나라도 명품으로 승부”

“기업을 이끌다보면 경기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이죠. 하지만 기술력에는 불황이 없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자동화, 무인화가 추세라지만 그것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평동공단에 자리한 금형·프레스 가공업체 디케이산업(주)의 김보곤(50) 대표가 22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는 ‘이달의 기능 한국인’에 뽑혔다.

나주 노안 출신인 김 대표는 전남기계공고(현 광주공고)와 전남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기능인 출신 경영자다. 그래서 무엇보다 독창적 기술력과 인재 육성을 중요시 한다.

김 대표는 대우중공업 생산직 사원을 거쳐 지난 1993년 5월 기술자 5명과 함께 자본금 3천만원의 밀천 삼아 80평 규모의 임대공장을 얻어 ‘대광산업(현 디케이산업)’을 창업했다. 이후 17년만에 1만여평 부지에 근로자 250명, 연간 매출액 720억 원, 수출실적 4천만달러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이 회사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을 생산해 삼성광주전자 등 대형 가전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냉장고·세탁기부품 대기업 납품 기술력·인재 중시 경영철학  
년 매출 720억 중견기업으로

그는 2008년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앞다퉈 구조조정을 할 때 오히려 신규 채용을 확대했다. 당시 163명이던 근로자를 250명으로 50% 가량 늘렸다. 또 연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

이같은 공로로 지난해에는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8년 5월에는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상’을 수상했다. 또 ‘모범 중소기업인상’, ‘수출유망 중소기업’, ‘3천만불 수출의 탑’도 받았다.

이같은 성공 비결에는 ‘작은 부품 하나라도 고객의 요구에 최고의 품질로 보답한다’는 김 대표의 신념과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또 인력 관리와 인재 육성을 중시하는 경영철학도 뒷받침 됐다. 그래서 그는 사원들의 실력향상에 힘을 쏟는다.

“기껏 기술을 가르쳐 놨더니 더 좋은 조건 찾아 다른 회사로 가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투자에 인색하고 직원들의 이직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키우지 못합니다. 실력 오랜 시간 키운 근로자가 이직을 해도 그 기술은 우리 사회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김 대표는 “근로자 스스로가 평생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며 “경영자는 근로자를 이익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 함께 아우르는 형제나 자녀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예비부부 잡아라” 혼수마케팅 경쟁

지역 유통업체 앞다퉈 예물·가전·가구 등 할인 기획전

봄 웨딩시즌을 앞두고 지역 백화점들이 다양한 혼수 마케팅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잡기에 나섰다.

예물, 가전, 가구 등 혼수상품 기획전을 통해 알뜰한 가격에 신혼 살림을 꾸밀 수 있으며 사은품은 물론 구입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도 챙길 수 있다.

22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까지 ‘리빙&웨딩페어’를 열고 예물 등 혼수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약속의 선물 예물제안전’에서는 사랑 미미로즈 세트를 400만원에 선보이며 특보상품으로 남양진주 커플링(43만8천원), 골든

듀 메이로즈 펜던트(45만원) 등을 내놓았다.

또 ‘남여 예복 제안전’을 진행, 마인 원피스(62만5천원), 마에스트로 정장(59만5천원) 등을 판매한다.

‘혼수세트 상품 제안’전도 열어 운현궁 카루멘 침대커버세트(49만원), 실리트 코트로넬비 4종세트(32만원) 등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마트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을 모아 파는 ‘삼성·LG전자 인기가전 기획전’을 준비했다.

삼성 지펠 양문형 냉장고(726ℓ) 110만원대, 파브 LCD TV(101cm) 130만원대, 하우젠 홈멀티에어컨(15평+6평) 180만원대,

LG는 트롬세탁기(12kg) 60만원대, 휘센 2in 1 에어컨(15평+6평) 150만원대에 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5일까지 ‘프리미엄 웨딩 박람회’를 열고 가전제품, 침구, 예물 등을 할인판매한다. ‘삼성·LG 디지털 가전’ 기획전을 진행해 삼성16kg 세탁기 74만원, 116cm LCD TV 152만원, LG 17kg 드럼세탁기 69만7천원, 에어컨 135만원 등에 선보인다.

상품기획자와 협력업체가 기획한 ‘혼수가구 인기상품 제안전’에서는 홈&데코로 몬드리안 4인식탁 세트(99만원)를 비롯해 특보상품으로 보르도 4인 소파(한정)를 250만원에 선보였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가전, 가구, 모피, 준보석 구매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송기진(왼쪽에서 네번째) 광주은행장과 정희석(세번째)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22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녹색성장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은·농협 등 지역금융계 선거비용 관리 통장 출시

광주·전남 금융기관들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의 선거비용 관리 전용 통장을 내놓는 등 선거자금 유치전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KJB 2010 당선지원통장’을 23일 출시, 선거일인 6월2일까지 한시 판매한다. 이 통장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선정한 회계책임자가 예금주로 가입,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다. 예금주는 전자금융·자동화기기·타행송금 수수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 통장관련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없다.

농협 광주·전남 지역본부도 현재 영업점에서 ‘오 필승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공직선거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가입 대상이며,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금융권이 선거자금 유치를 나선 것은 출마자나 예비후보들이 은행계좌를 통해 선거지출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데다, 여느 때보다 이번 선거의 경쟁률이 높아 적잖은 선거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光銀 그린마케팅 확대

녹색산업 자금지원 등 영산강 환경청과 협약

광주은행이 지역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서는 등 ‘그린 마케팅’을 확대한다.

광주은행은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광주은행은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금융상품 개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청에서 추진하는 녹색 생활운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녹색화에 적극 참여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녹색성장 산업 등에 대한 각종 정책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 등에 광주은행의 녹색금융상품 가입 유도하고 홍보를 추진한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녹색금융경영 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그린스타트 예금, 탄소그린카드 등 녹색금융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차없는 날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 저감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축산물 판로 확대위해 시장개척”

5선 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

“경영혁신과 축산물 판로확대를 통해 조합원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일 광주축산농협 제18대 조합장으로 당선인 확정된 안명수(68) 현 조합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조합발전이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조합장은 지난 21일 조합장 후보등록에서 단독 입후보, 5선 조합장이 됐다.

안 조합장은 “배합사료공장에서 양질의 사료를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하고 수익확대를 위해 시장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지난해 조합의 총 사업실적이 6천여억원을 기록한 만큼 1조원 돌파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안 조합장은 지난 1984년 축협에 입사한 뒤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16년째 광주축협을 이끌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Large advertisement for '비금도산의 청정함을 맛보세요!!' (Taste the purity of Beogeum-dosan) featuring images of farmers and their produce.